ELIO’S LITTLE DISCOVERIES

The Same Rain

같은 비 · 기다리고 인정하기



11세 · Day 041 · 함께 읽기 · 4장면



Elio looked from Bori to Mum. They were standing in the same kitchen, listening to the same rain, and they heard two different things. “So the rain is good and bad,” he said.



“Not good and bad,” said Mum. “It is good for the beans and bad for the picnic. Both are true.” Bori folded her wings. She had wanted one answer, and now there were two.



“Can we have the picnic inside?” asked Elio. “We could put the blanket on the floor.” Bori looked at the window. “It is not the same,” she said. “The pond is outside.”



Mum did not tell her to be happy about the rain. She put on the kettle and set three cups on the table. “We can wait,” she said. “Rain often stops. And if it does not, we can choose again.”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비 내리는 창과 식탁을 함께 보고,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하나씩 말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엄마의 말과 보리의 말을 번갈아 짚으며 읽어요.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보면서 무엇을 각각 생각했는지 찾아봐요.

생각 나누기

엄마는 왜 비가 반가웠나요? 보리는 왜 속상했나요? 둘 중 한 사람만 맞다고 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유를 원문에서 하나씩 찾아봐요.

생활에서

오늘 날씨를 함께 보고, 같은 날씨를 좋아할 사람과 싫어할 사람을 생각해 봐요. 아이의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들어 줘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